불교 철저히 통제하면서 개인적으론 신봉

<52> 청대 황제들의 불교정책과 봉불(奉佛)

청대에는 명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통치이념을 정주(程朱) 이학(理學)으로 채택했다. 순치(順治) 3년(1646) 선포된 '과장조례(科場條例)'에서는 정주 이학과 유가 경전만으로 과거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지금의 학문은 오직 주자(朱子)를 종(宗)으로 할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주자만이 바른 학문이요, 주자가 아니면 올바른 학문이 아니다"(<청학안소식(淸學案小識)>)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대 황제들은 명대에서와 같이 불교에 대한 통제를 더욱 철저하게 했다. 명대의 승록사(僧錄司) 제도를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명대보다도 철저하게 도첩제(度牒制)를 시행해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승려가 되는 것을 막았다.

불교에 대한 통제는 철저했으나 청대의 황제들 중에는 불교를 신봉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의 세조 순치제(順治帝)는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어 선학(禪學)에 상당한 조예를 보였다. 순치제는 순치 4년(1657)에 경서(京西) 해회사(海會寺)의 감박성총(憨璞性聰) 선사를 궁으로 초청해 설법을 듣고 '명각선사(明覺禪師)'라는 호를 내렸다. 후에 다시 옥림통수(玉林通琇) 선사를 청해 설법을 듣고, '대각보제선사(大覺普濟禪師)'의 호를 내렸다. 목진도민(木陳道忞) 선사를 입경시켜서는 수시로 찾아 도를 묻고는 '홍각선사(弘覺禪師)'의 호를 내렸다. 순치제는 불법을 신앙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법을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소정잡록(嘯亭雜錄)> 권1의 <세조선선기(世祖善禪機)>에는 "세조는 선의 깨달음, 특히 깨달음을 펼침에 있어서 뛰어났다. 일찍이 옥림 · 목진 화상을 입경시켜 만선전(萬善殿)에 머무르게 했다. 업무에서 한가한 틈을 빌어 때때로 두 선사와 선기(禪機)를 논해 대승에 달통했다"라고 기록했다. 후에 다시 통수 선사를 입경시켜 '국사(國師)'로 삼아 1500승려에게 수계했다. 이 때 통수 선사는 순치제에게 '행치(行痴)'라는 법명을 주었다. 법명을 받은 순치제는 이후 통수 선사에게 보내는 어찰(御札)에는 항상 '제자모모(弟子某某)'라고 썼고, 통수 선사의 제자들에게는 '법형(法兄)', '사형(師兄)'의 명칭을 사용했다. 또, 공문서에는 자주 '치도인(痴道人)'의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순치제는 순치 18년(1661년), 천연두에 걸려 24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일설에는 순치제가 지극히 사랑했던 후궁 동악(董鄂)이 병사하자 정치에 뜻을 잃고 오대산(五臺山)으로 출가(일설에는 경서(京西) 천태사(天台寺)로 출가)해 손자인 옹정제(雍正帝) 시기에 입적했다는 전설도 전한다. 이는 순치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에 귀의했고, 자주 출가를 원한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설이 아닐까 한다.

순치제를 계승해 황제가 된 성조(聖祖) 강희제(康熙帝)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중국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으니 불교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강희제는 "승려는 계율만 지키면 된다"고 인식하고 주자학을 추숭하는 동시에 불교를 보호했다. 치세시에 여섯 차례에 걸쳐 남방을 순시했던 강희제는 그때마다 각 지역의 유명한 선승들을 만났다. 또한 수많은 사찰의 현판을 써주었다. 반면에 강희제는 강희 16년(1677)에는 경성 내의 사찰에서 승려가 백성들을 모아 설교하는 일을 금지하고 부녀자가 사찰을 참배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한 사찰과 그 가족을 처벌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불교의 통제정책은 명대로부터 이어져온 기본적인 노선이었다.

도첩제 시행해 백성들이 승려가 되는 것 막아
중국불교 쇠락의 길 명맥만 유지

청대의 대표적인 독재군주인 세종(世宗) 옹정제(雍正帝)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심취해 항상 선승들과 왕래하며 선학을 연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원명(圓明)거사'라는 자호를 사용했다. 또한 스스로 선을 논한 어록과 시문(詩文) 등을 모아서 <원명거사어록(圓明居士語錄)>(<어찬어록(御選語錄)>권12 수록)을 찬술했다. 세종은 당시 유명한 선승 혹은 대신들과 선학을 논한 것을 모아 <당금법회(當今法會)>(<어찬어록> 권19 수록)로 집성했다. 후에 옹정제는 친히 역대의 선사어록 19편을 편집해 <어찬어록>(<만속장경(卍續藏經)>119책 수록)이라고 했고, 총서를 비롯해 각 어록에 서문을 찬술해 20편의 서문을 실었다.

<어찬어록>의 총서에는 "지금 옛사람들의 말을 보니, 짐의 말과 대부분 서로 들어맞아 무심(無心)히 스스로 합한다. 원음(圓音)이 이와 같으니 어찌 놀랍지 아니한가!"라고 해 옹정제는 자신을 선문의 종장(宗匠)으로 여겼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불교계에 대해 "명리에만 마음을 쏟고 커다란 망어를 짓고서", "계율을 중시하지 않으며 서로 기만하고", "불자(拂子)를 팔고 법의(法衣)를 파는 것이 시장과 똑같다."(<어찬어록>권12)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의 불교계는 담연원징(湛然圓澄; 1581~1626) 선사의 <개고록(慨古錄)>에 나타난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의 타락은 명 · 청시기에 불교에 대한 철저한 통제정책으로 인해 불교의 교세가 쇠락했고, 그에 따라 뛰어난 인물이 배출되지 못했으며, 교의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다.

옹정제는 이러한 불교계의 상황을 개선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옹정제 스스로 '원명거사'라는 호를 짓고서 선학을 연구했던 것은 불교에 대한 절대적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세간과 출세간 양계 모두의 황제로 군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적으로 <어찬어록>에 보이는 옹정제의 선학에 대한 견해는 결코 새로울 것도 독자적인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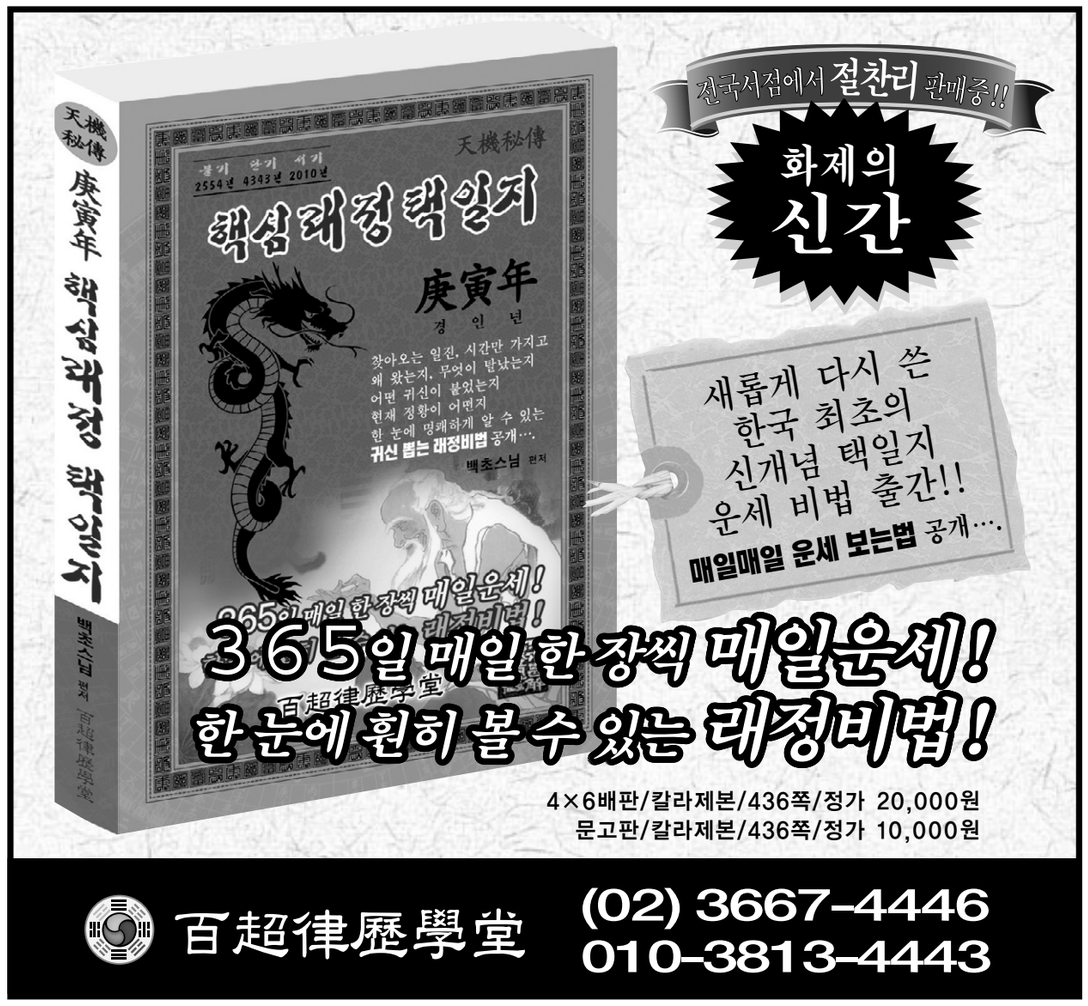
옹정제의 11권은 '승조(僧肇), 현각(玄覺), 한산(寒山), 습득(拾得), 영우(靈祐), 혜적(慧寂), 종심(從諗), 문언(文偃), 연수(延壽), 중현(重顯), 극근(克勤), 통수(通琇), 행삼(行森)' 등 모두 13인의 어록과 도교의 조사인 장백단(張伯端)의 어록을 싣고 있다. 이러한 편제를 기본으로 옹정제는 선종의 위앙 · 운문의 양가만을 취했다. 또, 임제 · 법안 · 조동의 삼가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옹정제가 이러한 편제를 한 까닭을 위앙 · 운문에서는 "'부자제미(父子濟美)', '대자대비'의 사상적 풍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그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있음이 짐작된다.

옹정제 입장에서는 임제종에서의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함[呵佛罵祖]"의 가풍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옹정제는 단하천연 선사의 소불(燒佛)에 대해 "단하가 목불을 불사른 것을 그 어록에서 보았는데, 견해가 다만 무심(無心)에 머무른 것이고, 실제로는 광참(狂參)이요 망령되이 지은 것이다. 단하의 견해에는 목불 이외에 다른 부처는 없는 것인가? 만약 이렇다면, 자손이 선조의 위패를 불사른 것과 같고, 신하가 왕위를 찬탈한 것과 같으니, 가당치도 않다"(<어찬어록>권14)라고 혹독하게 평가했다. 이로부터 옹정제가 선학을 연구했고 <어찬어록>을 편찬한 것은 단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옹정제는 강희제가 백성을 교화하고 통치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찬술한 '육유(六諭)'를 확대해 '성유십육조(聖諭十六條)'로 작성하고, 각 조항마다 친히 설명을 붙이고 그 의의를 해설한 <성유광훈(聖諭廣訓)>을 지어 전국에 반포했다. 그 7조에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오로지 정학(正學)을 받들라'는 항목에 대한 설명에서 불교는 한 명이 출가하면 구족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망설을 내뱉어 지옥 · 윤회 · 응보 등의 허담을 설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용화회(龍華會) · 우란분회(盂蘭盆會) · 구고회(救孤會) 등을 만들어 남녀가 혼잡하게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강경 · 설법으로 이익을 도모하며, 심할 경우에는 당(黨)을 만들어 맹(盟)을 결성하고 세상을 미혹하게 하며 백성을 무고하게 만든다고 극단적인 평가를 했다. 이것이 옹정제의 참다운 불교에 대한 입장이었다.

그림 · 김홍인

옹정제를 이은 건륭제(乾隆帝)도 제도적으로는 옹정제처럼 불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으나 자신은 불법을 숭상했다. 특히 건륭제는 대장경 판각에 관심을 갖고서 건륭 3년(1738)에 완성하는데, 이를 청장(淸藏) 혹은 용장(龍藏)이라고 칭한다. 또한 건륭제는 이를 만주어로 번역을 하는데, 건륭 38년(1773)에 시작해 18년 만에 699부, 2466권을 완성했다.

청대는 명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불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황제들은 한편으로 제도적으로 통제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철저한 불교의 통제정책은 이미 중국불교를 쇠락하게 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했지만, 황제들의 개인적 신앙으로 겨우 그 명맥만은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어쩌면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